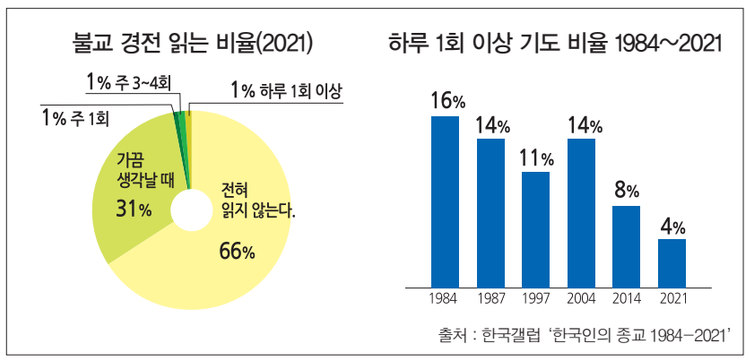
佛子 '기도 · 경전읽기 · 법회참석' 안한다

갤럽, '한국인의 종교' 조사
불자 66% "경전 읽지 않아"
불교 '3無 현상' 뚜렷 · 가속
교육 · 포교 체질 개선 필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법회 참석 않고, 경전을 읽지 않으며, 기도도 하지 않는 '3무(無) 불자' 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5월 18, 20일에 2차례 걸쳐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조사는 1984년 시작돼 2014년까지 5차례 진행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 전체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불교적으로는 '3무 현상' 이 빨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40%였다. 비종교인은 60%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종교인 비율인 56.4%와 유사한 수치로 사실상 한국사회가 '무종교사회' 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한국갤럽은 종교인구 감소 원인으로 청년층의 탈종교화를 꼽았다. 2004년 조사에서 20대 중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 20대는 31%, 2021년 20대는 22%로 종교 인구가 줄고 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 2014년 38%, 2021년 30%로 감소했다. 한국갤럽은 "20 · 30대의 탈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와 전체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종교인들 중 호감을 갖는 종교로 '불교' 를 꼽은 사람은 20%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는 13%, 개신교는 6%가 호감을 표했다. 반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는 답변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33%만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고 했지만 2014년에는 46%, 2021년에는 61%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신행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종교시설 방문률에 대한 설문에서 불교인 중 1%만이 '주1회 이상 사찰에 방문한다' 고 응답했으며, 연 1~2회 사찰을 찾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반면 개신교인 57%, 천주교인 42%가 주1회 이상 교회 · 성당을 찾았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개신교인의 매주 종교시설 방문률은 2014년 80%에서 2021년 57%로, 같은 기간 천주교인은 59%→42%, 불교인은 6%→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불교인 중 1%만이 하루 1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주 1회 이상 불경을 읽은 불자는 응답자 중 3% 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11%였던 수치보다 8%가 줄었다. '불경을 읽지 않는다' 는 불교인은 66%에 달했다.

'하루 1회 이상 기도한다' 는 불자는 5%에 불과했다. '월 몇 회 이하' 라고 답한 비율은 45%로 가장 많았으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불자는 42%였다.

'개인생활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를 묻는 질문에서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고 답한 불자는 62%로, 개신교인 90% · 천주교인 85% 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찰 방문 빈도가 적다고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종교성이 옅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기도와 경전 읽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는 현재 한국불교 신행 형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불교 교육과 포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 대부분의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이나 입춘, 백중, 동지에 사찰에게 가서 등을 밝히는 '정서적 불자' 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서 경전 독송, 염불, 기도 등의 신행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면서 "앞으로 불교는 교육 · 조직화된 신도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젠 신도교육과 포교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상 수지 독송할 수 있는 〈불교성전〉의 보급을 비롯해 포교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불교 종단들은 교육된 핵심 신도 발굴 · 양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오신날 '전도축제'연 개신교 '빈축'

조계사 인근 '찬송가' 방송
"하나님 믿으라" 구호외쳐
"도 넘은 행위" 비판 확산

부처님오신날 한 개신교 단체가 봉축법요식이 봉행되던 서울 조계사 인근을 돌며 확성기로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라' 고 구호를 외치는 등 상식 밖의 행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참배하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신심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날인 만큼, 사찰에서 벌어진 개신교계의 일방적이고 몰상식한 선교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개신교 단체는 5월 19일 오전 10시~5시 봉축법요식이 봉행된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서울예수전도축제' 를 진행했다. 이날 전도축제에는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불교연등 즉각 철거, 차별금지법 원천불가 등을 플래카드에 명시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그리고 오후 2시반경 이들은 조계사 일주문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확성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며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방해했다. 지나가던 시민들과 신도들의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찬송가를 방송하던 이들은, 결국 5시간 넘게 조계사 인근에서 일방적인 선교행위를 하고서야 자리를 떴다.

본지가 제공받은 사진의 플래카드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예수재단' 이라는 개신교 단체가 주최했다. 예수재단은 지난 2013~2014년 경에도 조계종에 연등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연등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정 취소를 주장하는 등 조계사 일대에서 불교폄훼 활동을 지속해 왔던 단체다.

한편, 이날 집회는 불자들을 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블로그와 SNS 등에 게재하면서, "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송지희 기자



한 개신교단체가 5월 19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서울예수전도축제' 를 벌이고 있는 모습.

"신흥사 시왕도 4점, 환수 당위성 크다"

신흥사 · 문화재제자리찾기 주최
5월 14일 환수 방안 모색 세미나
김경미전문위원 "지속노력 필요"

한국전쟁 직후 미국으로 반출된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조계종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신흥사와 속추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사히 환수됐지만, 여전히 시왕도 4점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시왕도 등 돌아오지 못한 신흥사 성보문화재 환수 방안을 모색하고 환지본처한 문화재의 효과적인 활용 · 보관을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는 5월 14일 '신흥사 성보문화재 환수 촉진과 활용방안'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박미현 문학박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경미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신흥사 시왕도 4폭의 환지본처를 위한 제고' , 박동석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이사장이 '설악산 신흥사 환수문화재 활용방안' , 김근태 한국외국어대학교수가 '환수문화재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 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창삼 강원도민일보 속초지사장과 홍성익 강원도문화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경미 전문위원은 신흥사 시왕도 4점에 대해 "반드시 제자리로 환수돼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시왕도는 1954년 신흥사에 있던 미군의 반출 전후 사진에 의해 한국전쟁 후 주둔했던 미군의 불법반출 행위로 사라진 문화재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전란 중에 약탈당한 문화재로서 송환의 대상이며, 이 불화가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왕실 원당이자 추복사찰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불화라는 점에서 남은 4위의 시왕도에 대한 환수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재 환지본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김 위원은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에 대해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다소 수동적이었던 헤이그협약의 관점에서 점차 환지본처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다양한 국제협약의 목적은 도난 ·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이라며 "이러한 협약은 크게 구속력을 갖지 못하다가 이라크전쟁으로 이라크의 문화재가 약탈 및 불법 반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적으로 공감대가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약탈당한 문화재 등이 페이스북에서 판매되는 현황이 발표되면서 전쟁 중 이뤄진 약탈 문화재의 보호에 관심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은 "문화재 반환은 '불법이전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를 통해 조정 및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며 "ICPRCP는 2020년 5월까지 22차 회의를 개최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경우 원래의 자리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신흥사 시왕도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미군에 의해 반출됐음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성을 열어놓고, 당사국 및 관련 기관, 소유자가 지속해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남은 4위의 시왕도 환수를 위해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다는 불화에 관한 확인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진흥원 대원학술 · 콘텐츠 공모 당선작 시상

학술부문 8편, 콘텐츠부문, 11편 총 1억 6400만 원 지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5월 18일 '제3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당선작을 발표,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의 재단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불교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연구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월 12일까지 응모된 총 88건(학술 28건, 콘텐츠 60건)의 학술 및 콘텐츠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51건에 대해 상세 계획서를 추가로 접수받은 것으로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술 부문 8편과 콘텐츠 부문 11편 등 총 19편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학술 부문에는 저서 3편과 번역서 5편이, 콘텐츠 부문에는 만화 1편, 동화 2편, 찬불가 작사/작곡 2편, 수행프로그램 개발(실행) 6편을 선정됐다.

제3기 상금 총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최종 선정된 지원자와 단체에게는 각각 500만 원에서 1200만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선정자는 약정서 체결을 통해 결과물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 중 일부는 심사를 거쳐 향후 총서 시리즈 형태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6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입니다

접 수 10.13(수) ~ 14(목)
전 시 11.24(수) ~ 29(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6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유 의 사 항
불 화 (전통·현대)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조 각	높이 25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작으로 제출
공 예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자격 제한 없음
※ 1인 3점 이하
※ 1점당 5만원, 대학 재학생은 3만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 우 수 상 (문화재청장상)	1명	상금 700만원 상장 상패	
우 수 상	4명	상금 각 200만원 상장 상패	
장 려 상	4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 상패	
특 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 선	약간명	상장	
특 별 상		상장 및 기념패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공모요강·원서 배부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다운로드

작품 접수
- 접수 기간 : 10월 13일(수) ~ 14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시상식 및 전시
11월 24 ~ 29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